



Autumn Vol.7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실천



EM
Empowerment Society
실천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 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행일 2010. 9. 29

발행인 김영환

편집인 박미선

디자인 이진숙

인 쇄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워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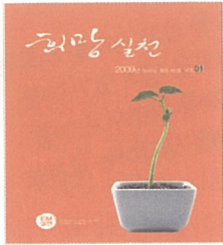
팩 스 02,875,9965

이메일 em21c@hanmail.net

홈페이지 www.em21c.com

Contents Autumn Vol.7

2009



2009. 봄



2009. 여름



2009. 가을



2009. 겨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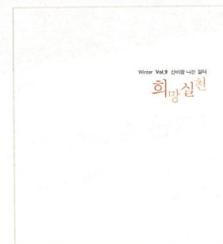
2010. 봄



2010. 여름



2010. 가을



2010. 겨울

좋은 글 04

여름휴가 05

-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 박진희
- 장호원에서 | 조은숙
- 한해중 가장 긴 빨간 날 | 양현모

교육보고 09

- 장애인 부부의 삶 | 박동진
- 주거복지교육 | 홍민성
- 산업안전교육 | 임성수
- 해외연수 | 박미선

직원소개(신규 및 자기소개) 15

- 직업재활팀 | 양은정
- 총무기획팀 | 서소연
- 우편발송부 | 민성준 · 김원기

운영위원회 소개 17

- 운영위원장 | 최병태
- 상하반기 운영위원회

2010년 EM실천 News 19

- 2010년 근로사원 만족도 조사결과

EM실천 이용 안내 27

화장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벗과 교제하는 대에도 약자를 돕고 강자를 누르는
남아의 의기가 필요하다.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
에 교제를 한다든가 또는 교제를 하면서 손해를
볼 것이므로 절교하는 등 이해를 생각하는 교제는
건실한 교제라 할수 없다,

-채근담-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힘이라 말할 수 있다,

- 파스칼 -

맹수를 두려워 하지 말고 약한
벗을 두려워하라
맹수는 다만 몸을 상하게 하지만
약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 아함경 -

전혀 옳지 못한 것 보다 가끔이라도 옳
은 것이 더 낫다, 따뜻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 이드리스 샤흐 -

명성은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지만
향기없는 해바라기이다, 그러나
우정은 꽃잎 하나하나 마다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이다,

- 올리버 웬들 홀스 -

대릉테크노타워 6차 10층 여자화장실에서...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와! 신난다 여름 휴가가 다가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오셨고 기분이 참 좋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엄마는 나를 뒤로 한 채 일에 집중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구포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고 하셨다. KTX를 타면 금방 갈 텐데 무궁화호를 타고 장장 다섯 시간을 달렸다. 너무 지루했다.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었다. 부산에 도착해서 맛있는 회를 먹었다. 내가 사드릴려고 하니까 외삼촌께서 회를 사 주셨다. 외숙모께서 음료수와 술을 파는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엄마께서는 옷과 신발을 사주셨다. 밥도 맛있었고 커피도 맛있었고 냉면도 맛있었다.

다음날 아버지를 따라 광안리, 해운대를 다녀왔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광안리는 사람이 없었고 해운대는 바닷가여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다. 수영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가족들과 커플들이~~ 엄마와 휴가를 맞추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때문일까, 나와 휴가가 맞지 않은 엄마가 괜스레 실망스럽기도 했다. 비록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휴가는 짧았지만 엄마와 함께하였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다음 여름휴가는 엄마랑 꼭 휴가를 맞춰서 엄마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쉽게도 외삼촌 외숙모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빠셔서 같이 하지 못했다. 내겐 너무 신난 여름휴가지만 함께하지 못한 동생이 마음에 걸렸다. 동생들은 휴가가 맞지 않아서 다음에 갈 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오랜만의 부산여행에서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조금은 변해버린 동생들은 아픈 나에게 당황스러움과 걱정들, 만이로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엄마께서 떡을 맞춰 주셨다. 엄마 아빠께 뭘지 모르고 참 미안했다. 내년엔 또 부산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살쥔 찌셨으면 참 좋겠다. 너무 많이 마르셨다. 엄마도 당뇨가 있으셔서 살이 많이 빠지셨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빠도 비록 경상도 분이셔서 애교는 없으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프다.



우편발송팀 | 박진희

화려한 부산바다와 푸른 하늘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나의 집과 직장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에 다녀온 지 얼마 안돼서 벌써부터 부모님이 너무 보고싶다. 매일 전화와 영상통화를 하지만, 아버지는 또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신다. 엄마도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다. 비록 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빠에게 정이 많이 들었다. 매일마다 야단맞고 꾸중을 들어도 엄마 아빠가 좋고 사랑한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전화에다가 날더러 사랑한다고 하신다. 엄마도 날더러 진희야 사랑한다고 하신다.

엄마 아빠 나 진희도 엄마아빠를 많이 사랑합니다. 가까이서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휴가를 기약하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장호원에서

2010년 여름휴가는 친척언니네 집에 다녀오기로 계획을 미리 세웠다. 강변역에서 버스를 타고 장호원터미널에 내리니 새삼 낮이 설었다. 언니가 마중을 나왔는데 금새 회사에 볼일이 있어서 나만 집에 남겨두고 가버렸다.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다른 언니들, 오랜만에 보는 언니들이라서 너무 좋았다. 점심도 먹고 저녁에는 맛있는 옥수수과 감자도 삶아 먹었다. 언니는 나를 위해 작은방에 침대를 청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주거시설에 서 생활하는 내게 친척언니들의 배려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느낌이었다.

다음날 난 매곡성지라는 곳에 처음 가 보았다. 축복 받은 땅이라는 곳에서 나는 웃지도 못할 일이 있었다. 기도문을 써서 편지함에 넣고 불태워 버리는 예식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편지와 함께 봉헌금까지 넣어서 편지함의 모든편지를 뒤져서 겨우 내 편지를 찾을 수 있었다. 다행히 관리실 형제님이 편지함 열쇠로 꺼내주셔서 찾을수가 있었다.



복사팀 | 조은숙

이곳 **매곡성지**는 시골이라서 반찬도 매우 토속적이었다. 지붕위에 텅구는 호박, 가지, 비름나물, 오이고추, 근대국등 온갖 나물들이 여름휴가를 맞이한 나의 행복감을 더욱 크게 해주었다. 저녁에는 씬바귀를 캐서 고추장에 무쳐 먹었는데 더위로 없어진 입맛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마을입구에 있는 봉숭아꽃에 욕심이 나서 나는 봉투 한가득 따서 담았다. 함께 살고 있는 주거시설의 동료들과 봉숭아 물을 가득 들이려고...

2010년 여름의 씬은 나에게 또다른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휴식을 통해서 친척들을 만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유도 부리고 ... 일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름에 씬은 너무도 값지다.

2011년 또다시 찾아올 나의 여름휴가를 계획해 보며 남은 2010년도 열심히 일해보자.

한해중 가장 긴

비바디날



직업재활팀 | 양현모 사회복지사

새해가 되면 달력을 뒤적거리며 빨간날을 찾듯 나에게 여름휴가 또한 한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대하며 빨리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이다. 휴가 전부터 친구와 함께 챙겨갈것들을 적으며 계획서까지 작성한 우리.. 참 철저하다. 빠진것들은 없는지 예약은 잘되었고 픽업을 몇시에 해주는지 팬션주인아저씨에게 아침부터 전화해 성화다.

아침일찍 일어나 다시한번 목록을 체크해보고 나서려는데 화장대에 올려진 삼만원.. 다 큰딸 엄마가 준 휴가비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로 출발했다. 매일같이 타는 전철이지만 편한 복장에 마음까지 가벼워 설레었다. 청량리에 도착하자 역시 젊은이들이 북적거렸다. 한손엔 수박한통씩 들고 🍺와 🍷를 너도나도 들고 한껏 치장한 모습에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이였다. 나또한 이쁘게 뽀을 내보려했으나.... 내 몸조차 짐이였다. 그렇게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의 높은 빌딩들을 지나 계곡에서 물놀

이하는 모습,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종종 보였다. 친구가 저장해온 영화들을 보며 1시간이 넘어 가평역에 도착했다.

작년에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니 냉장고에는 역시나 고기를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다.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개울로 향했다. 팬션주인아주머니는 작년에 왔던 손님들이네 하며 반겨주었다. 물에 들어가니 얼음이 될것 같았지만 친구가 준비해온 물안경을 번갈아 쓰며 좋아라 했다. 한시간정도 수영을 하고 작년에 없던 배트민턴과 🚲, 상영하고 있는 최신작 DVD도 보고 저녁식사를 일찍 하기로 했다. 이상하게 식당에서 먹는 고기보다 같은고기라도 이런곳에 오면 왜 맛이 틀린지 모르겠다. 불을 피워 아저씨가 공수해온 팬션의 자부심 '참숯'에 고기를 굽고 🍖와 비빔면까지 만들어 차려놓고 🍪과 준비해온 안주거리로 오징어까지 구웠다. 두시간넘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가 지났다.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까지 나가보자 하여 밥을 간단히 먹고 모자를 쓰고 얼린 물까지 챙겨 자전거를 탔다. 으악 너무 더워... “오르막길내리막길” 1박2일의 이수근이 하던말이 생각났다.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갈때는 자연의 향기가 듬뿍담긴 바람을 가르며 내려갔지만 팬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미친듯이 더웠다. 물을 마시려고 찾았는데 아차...자전거에 실고 오질 않았다. 결국 가평역까진 못갔지만 재미를 느끼고 숙소에 돌아왔다.

다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원한 물에 1시간정도 물놀이를 하고 DVD를 보려고 고르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다. 좋아라 하며 영화관에서 본것들은 제외하고 ‘차

우’라는 영화를 보았다. 웃기기도 하고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하며 영화를 결국엔 다 보았다.

어제남은 소세지와 만두를 굽고 집에서 싸온 몇가지 밑반찬을 꺼내고 참치김치찌개를 끓였다. 밖에서 먹으니 같은 반찬이라도 더 맛있는거 같다. 그렇게 이튿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다. 아직 하루도 지난것 같지 않았는데 벌써 셋째날이라니.... 이번주가 지나면 출근이다..... 벌써부터 다음주 출근할 걱정을 한다. 올해중 가장 길었던 빨간 날은 지나갔지만 나에겐 추석이 있다! 여름휴가 끝!

장애인부부의 삶 '성재활 세미나'

제1부 : 부부의 심리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부부의 스트레스 및 갈등 관리
2. 지체(척수)장애인 부부상담 사례
3. 지적장애인 부부상담 사례

제2부 : 부부의 성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인지행동 성치료
2. 척수손상부부의 성재활 동영상 소개 및 성재활 상담의 실제
3. 행복한 부부, 행복한 성



우편발송부 | 박동진

듯, 현실적이고 바른 성에 대해, 재미도 곁들여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다. 끝날 무렵엔 더 좀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심리적 성적으로 참 모르는 게 많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결혼 5개월을 맞이한 나는 사실 우리 부부의 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본교육을 통해 장애인 부부인 경우 성재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직은 '부부'라는 이름이 어색하지만 우리에게 부부의 참의미와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해 주었다. 비록 부족한 지금이지만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돌아왔다.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였다. 배정원(행복한 성문화센터 소장)님의 강의는 그 마음을 달아나게 해주었다. 전에 TV에서나 본 구성애에 '아우성'을 보는

주거복지교육

나는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1년전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까지 주거시설, 흔히 그룹홈이라는 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지내거나 여럿이 지내거나 크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홈은 60세이상은 거주할수없다고 한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나도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독립생활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해보지 않았다. 마침 주거복지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있는 기회가 있어 관심있게 듣게 되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같은 고민속에서 본 교육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나눌수있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길 원하고 나 또한 오랜시간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교육을 해주는 강사님은 서울인근의 경기도



우편발송부 | 홍민성

에도 장기전세주택이 많다는 것이다. EM실천에서 외근을 다니면서도 가끔 경기도 일대에 지하철을 이용해 갈때가 있다. 그다지 멀지 않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들고 나의 강점중에 하나 또한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 잘 다닌다는 것이다. 조금은 느긋하게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내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기에 나는 이번 기회에 알게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먼저 장기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산업안전

재해 발생률 0% 를 향한



직업재활팀 | 임성수 팀장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엠실천을 소개합니다.

Q 산업안전교육이란?

A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재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산업규칙에 맞게 업무에 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이익을 늘려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교육은 언제 어디서 실시 되나요?

A 매월 1회 이엠실천 작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누가 교육을 받고 있나요?

A 이엠실천 전직원이 교육을 받아 산업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Q 이엠실천에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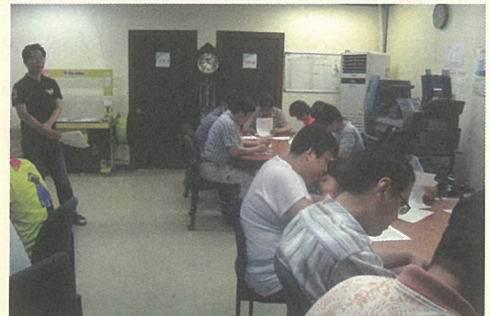
사무실에서의 안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소화기 화재예방 대책	나의 안전지수
환절기 건강관리	동절기 재해예방
봄철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예방
직장인과 스트레스	3대 다발재해 예방대책

다양한 교육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우리곁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예방을 위해 산업규칙 및 교육내용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엠실천은 사고성재해예방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장애인들이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일본탐방



총무기획팀 박미선 선임팀장

- 장소 : 일본
- 일정 : 2010년 8월 23일(월) ~ 25일(목)
- 일정표

날짜	연수내용	관광
23일(월)	오사카 生野区사회복지협의회 방문(14:30) -아자사야노 시토 특별양호노인홈 견학 -일본 사회복지현황 브리핑 및 노인시설 견학 -담당: 니시무라상	
24일(화)	교토 용곡(龍谷)대학교 방문 (10:00) 瀬田キャンパス (사회학부 복지학과) :大津市瀬田大江町横谷1番5 (077)543-7766 - 담당: 야마베교수님 090-3053-8264	■ 139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청수의무대로 유명한 청수사 ■ 천도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헤이안신궁 관광
25일(수)	교토 고헤의 집 방문 및 견학 (15:00) 京都市南区東九条南松ノ木47 TEL. 075-691-4448 - 담당: 김춘남 선생님	■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인 동대사, 사슴공원 관광. ■ 옛 정취가 느껴지는 나라마치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성
26일(목)	집으로~ 	■ 고베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베시청전망대 ■ 한신대지진의 피해지 지진 메모리얼파크 ■ 패션의 거리로 유명한 하버랜드 모자이크 거리 ■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난킨마치.

■ 연수보고

2003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EM실천에 입사, 손꼽아 기다리던 3년차가 지나고 해외연수를 갈수있다는 생각에 가슴뻑차게 기다리던 그날이... 2010년 8월에 찾아왔다.

금번 연수는 현재 재학중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일본연수로 기획되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연수가 내가 주는 의미는 특별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탐방**하고 그들을 통해 **현재의 나와 우리 시설, 나이가 복지발전이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있는 기회**, 일과 생활에 **지친 일상에서의 탈출기회**, 함께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과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기회**로 설레기만 하였다.

현재 임신 8개월인 내가 이번 연수를 과연 무사히 마칠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염려를 뒤로 한



채 나는 들뜬 기분으로 무더운 8월 23일 일본 오사카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일본 칸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도쿠시마에 위치한 **‘아지사이노 사토 특별양호노인홈’**이라는 곳을 방문했다. 이곳은 도쿠시마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약 4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친절하게도 이곳은 한국어로 된 기관 안내서를 배포해주었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잦아 오사카에서 직접 제작해주었다고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장기, 단기 주간 보호프로그램의 노인 시설이었고 한일 일제로 제주도가 고향인 할머니도 2명이나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지만 노인질환이 심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곳에서 알게된 새로운 정보는 일본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사회복지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따른 경력을 쌓으면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을 한후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게 되면 전문사회복지사가 될수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방문한 우리들은 대학원생들로 나름의 전문교과과정을 이수중인데 이러한 점에 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면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개호보험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 범주에 들어 갈수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의 경우 장애가 있든 없든 적정한 나이가 되면 개호보험대상이 된다고 하고 일본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대기자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노인홈도 대기자가 200명 가량 된다고 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문제가 되

고 있다고 한다. 일찍이 개호보험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요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또한 노인요양은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

둘째날 아침일찍 우리는 교토에 위치한 **용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방문했다. 이곳은 현재 송실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한차례 송실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전체 학부생은 2000명이 넘고 그중에도 사회복지학과는 한 학년에 4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또한 나와 같은 대학원생들은 그 정원이 제한적이고 한 학기에 10명내외로 선발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이 질적이 발전보다는 양적인 발전에 치중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석사과정에 1명, 박사과정에 1명의 한국인이 있었고 이들이 통역을 맡아 주었다.

이곳의 주임교수님을 맡고 있는 **야마베교수님의 동북아시아의 사회복지 발전방안이라는 강의**로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국가들이 공동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1시간 정도의 강의 들었는데 이후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토론은 할수없었지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용곡대학교〉





금번 해외연수에서 가장 좋았던 점중에 하나로 좁은 사회복지시아에서 넓은 시야의 사회복지자를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를 일깨워 주는 좋은 경험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이라는 복지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일까, 늘 사회복지정보에 대해 목마름을 느꼈는데... 스스로를 환기시킬수있는 기회였다.

셋째날 나는 **고향의 집이라는 노인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우리나라 **전남 목포에 공생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운영법인**으로 일본에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우리가 찾아가 교토외에도 오사카, 나라등 6곳의 시설이 더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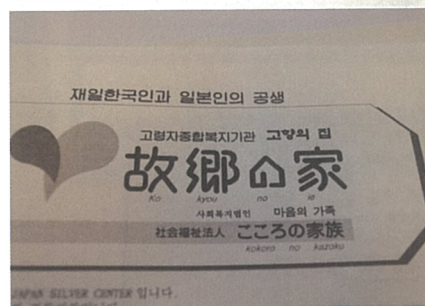
이곳의 설립자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란 분으로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지내던 일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일본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깝지만 한국에 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수있게 하기위해 편하게 한국어를 쓰고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개요보험으로 지원되는 시설이었다.

이곳의 특징중에 하나는 이것외에도 **한국의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장단기 연수로 고향의 집을 방문하여 실습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운영법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거나 대학을 방문

하는 일정외에 일본의 유명한 사찰과 관광지 등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일본은 130년 만에 온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우 건조하고 더운날씨, 임신 8개월인 내게 조금은 무리한 일정 때문에 관광을 그다지 즐겁지가 않았다.

우리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또한 이러한 날씨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더워서 숨이 탁 막 힐 정도였다. 3박 4일의 일정이 너무도 빠빠해서 참여자 모두가 피곤한 기색이 영역했고 나 또한 감기와 더위로 이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때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바쁜 일정속에서 이렇게 연수를 갈수있게 협조해준 **BM실천 원장님과 직원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연수비를 지원해주신 **운영법인의 사무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직원 모두가 함께 할수있다면 어떨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한채 이렇게 나의 해외 연수를 마친다.

〈고향의 집〉



일본관광사진전



도톤보리(변화가)



도톤보리(변화가)



유수현교수님과 교학과장님



해이안신궁



동대사



동대사



사슴공원



오사카성



오사카성에서 바라본 오사카시 전경



교베지진의 현장



난킨아치(차이나타운)

전문 편집은 나에게



외주편집자로 일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할 때 EM실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우들과 근무를 한다는게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단지 몸이, 정신이 불편할 뿐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작은 편견도 사라지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으려고 합니다.



직업재활팀 | 양은정

저는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즐깁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 배웠던 스노우보드에 매력에 빠져 지금은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동안 실력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즐기는 것에 매년 겨울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가 기다리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의 회사는 또래 선생님들이 없어서 할 수 없었지만, EM실천에서 제가 느꼈던 스노우보드의 즐거움을 동료 선생님들과도 느낄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의 달인이 돼까지



무더운 한 여름 날 EM실천에 면접을 보러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여름은 가고, 이제 완전한 가을이 왔습니다. EM실천에 입사하고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를 해 주시던 회원분들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회계,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총무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전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제게 모든 업무가 생소하기만 합니다.



총무기획팀 | 서소연

회계에 관심이 있어서 전산회계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지만 역쉬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조금은 있네요. 부가세 신고, 관항목에 따른 수입지출등.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EM실천의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미소로 대답할 수 있는 서소연이 되겠습니다. 회원분들도 EM실천 안에서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외근업무는 내 적성에 딱이야

안녕하세요. **민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흥시(군) 계수리에 서 2남 1녀중 둘째로 태어났고 봉제회사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 났습니다. 제 성격은 **내성적이면서도 활발한** 편입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이고 골 잘넣는 박지성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초등학교입학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뇌, 다리등에 큰 부상을 입어 한강성심병원에 오래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2학년때 그림을 잘 그려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없네요. 대학은 국제대학교로 지금의 서경대학교 법학과를 다녔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했습니다. 다시 편입시험을 공부해서 강남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입학해서 한학기를 다니다가 교통이 불편해서 또다시 자퇴를 했습니다. 다시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재입학해서 다시 자퇴를 했습니다. 이번엔 생각외로 교과과정이 저수준보다 높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개의 대학교를 입학만 하고 졸업을 하지 못한 저는 이번엔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

았지만 그땐 생각이 너무도 많았습니 다. 공무원시험도 쉽지는 않았고 여러 해 공부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나이 제한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일을 도와 주면 지냈습니다. 숭실대학교를 다니던중 잠시 휴학을 하고 중국에 6주 다녀온 후 **나는 지금 앓고 있는 정신분열로 처음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입퇴원을 했고 이후 특별히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은 희망근로 6개월**이 전부입니다. 작년 금천구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면서 EM실천을 알게 되었고 2010년 6월말 적응훈련을 거쳐 **8월에 수습사원**이 되었습니다. EM 실천에서는 **외근업무가 나의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나의 적성**을 잘살릴수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서 나는 중국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 힘겨운 정신분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겠습니다. 아무튼 이곳 EM실천에서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 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편발송팀 | 민성준

나는 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EM실천 **김원기** 라고 합니다. 나이는 21살이며 직업은 EM실천 우편발송팀 소속입니다. 동료직원을 처음봤을때 적응이 잘 안되고 잘 적응할수 있을까 걱정도 몇번씩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도 말대화도 없었습니다. 점차 조금씩 **EM실천에 나와서 동료들과 일을 할수 있다는게 좋았습니다.** 저의 어린시절은 웃음꽃이 만발한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미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아래 오십대에 접어드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원만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신망도 두터웠다고 자부합니다. **장남으로 성장해서 그런지 모든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격이며 제가 맡은 일은 열정을 가지고 완수해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라고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다만, **고집이 좀 세다는 단점**이 있고, 나의 공을 남에게 잘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과, 보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이득을 본적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M실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우편발송팀 | 김원기

EM실천 운영위원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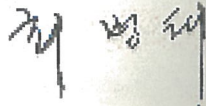
운영위원장 | 최병태

안녕하십니까

EM실천의 운영위원장 최병태입니다.

입주가 지나 가을의 문턱에 와 있지만 한낮의 더위는 아직도 무더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EM실천의 운영위원장으로써 물신양면으로 애쓰시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님의 안식년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용표 교수님을 대신해 EM실천의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이곳 가산동에 위치한 대릉테크노타운 6차 아파트형 공장에 EM실천이 입주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EM실천 개원식부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함께하며 EM실천의 여러 어려움을 도와가며 지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천구내 최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M실천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역시나 빠르게 자리잡아가는 EM실천의 모습을 보며 수고하시는 김영환 원장님과 박미선 팀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1만명의 등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번 EM실천의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EM실천이 금천구의 복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차성수 금천구청장님, 서복성 금천구의장님께도 큰 기대를 해봅니다. 디지털 첨단도시로의 성장처럼 금천구의 복지 또한 구청장님과 구의장님이 관심과 격려,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어느 곳 보다 더 눈부신 금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임원과 EM실천의 김영환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터전 금천구에서 새로운 개척자가 되어 열심히 복지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EM실천 운영위원장으로써 돕겠습니다. EM실천을 아끼시고 관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EM실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실천 운영위원장 

2010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보고



1차 운영위원회 : 2010년 4월 5일(월요일)

▶ 안 건

- 1안. 2010년 1분기 주요사업 보고
- 2안. 서울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수행 현황
- 3안. 2010년 2분기 주요 사업계획(안)

▶ 참석자

이용표운영위원장, 강상경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병태(지역주민대표), 장재원(가족 및 후원자 대표), 김영환(EM실천 원장)

2차 운영위원회 : 2010년 6월 29일(화요일)

▶ 안 건

- 1안. 2010년 상반기 운영실적보고
- 2안. 퇴직연금가입건
- 3안. 지역육구조사에 대한 연구계획변경
- 4안. 운영위원장 안식년으로 인한 업무대행위원 선출
- 5안. 2010년 하반기 운영계획(안)

▶ 참석자

이용표운영위원장, 강상경교수(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병태(지역주민대표), 장재원(가족 및 후원자 대표), 김영환(EM실천 원장), 박태준(노무법인 한길, 노무상담가)

07월

5일~30일 : 인디자인교육, 양은정
 6월 19일~7월 10일 :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과정 이수, 박미선
 8일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청회 참석, 김영환, 박미선
 23일 : 성동자립지원센터 주거복지교육,
 이회자, 홍민성, 장정임, 박진희

실습교육

7월5일~27일 : 장안대학교 정아진

- 총무기획팀 서소연선생님 입사
- 적응훈련생 : 민성준, 김원기님
-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2명참여



08월

20일 : 정신장애인지원관련 세미나
 (국회소의회실), 이지영
 10일 : 집단상담 '여름철휴가계획'
 19일 : 가족모임 희망회, 퇴직연금제소개
 9일 : 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 3명
 11일~12일 : 금천구청 지도점검

- 적응훈련생 : 윤동현, 최현진님
-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1명 퇴사



09월

2일~3일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종사자 워크숍
 이승환
 3일 : 국민은행 가산테크노타워 지점
 장소대여 (은행 회의건으로)
 14일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16일 : 집단상담
 16일 : 나들이 (국립미술관 관람, 영화관람)
 17일 : 취업유지모임

- 적응훈련생 : 김민석님
-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1명퇴사
- 근로지원 김정희 병원 퇴원



2010년 하반기 활동계획

10월 / 11월 / 12월

10월	2일	체육대회
	8-9일	법인발전회의MT
	18일	직업평가의뢰
	20일	가족모임
	30일	나들이
11월	19-20일	2010년 사업평가 및 2011년 사업계획 MT
	15일	자원봉사모집, 교육
	18일	실습모집, 교육
12월	10일	송년회, 2010년 4차 운영위원회
	13일	종사자, 근로사원 만족도 조사



2010년 하반기 체육대회의모저모



2010년 EM실천 상반기 근로사원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 시기 : 2010.7.
- 조사대상자 : EM실천 근로사원 20명
- 평가 기간 : 2010.10.4

전반적인 평가

- 이용목적은 대인관계향상-정신건강-취업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의 70%이상으로 나타남
- 이용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사는 80%가 권유하겠다고 함.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

- 초기 직원의 친절도는 친절하다는 응답률이 100%
- 이용절차의 편리성은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70%로 구체적인 이용규칙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적응훈련 1개월의 적절성은 절적하다는 응답률이 85%이 적정함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만족도

- 접근성은 기대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출퇴근을 위한 셔틀 버스제공이 긍정적인 응답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 공간의 적절성의 경우 만족도가 높긴하나 그렇지 못한 응답도 15%로 나타나 공간활용 및 욕구에 대한 사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컴퓨터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노력은 진행되고 있으나 인식이 부족하고 컴퓨터실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보여진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만족도

- 이용시간의 적절성의 경우 시간이 길다라는 응답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자치회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정기적인 상담, wer'와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른 도움요청정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평가되어 진다. 즉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0%이상 나타남으로써 이용자와 wer와의 관계형성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새로운 직무기술훈련, 자신감향상, 대인관계향상등에 대한 도움은 크나 취업에 대한 상담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이나 개입은 2010년, 2011년에 보강되어야 하는 서비스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직원에 대한 만족도

- 직원에 대한 친절도와 함께 만족도 또한 높은편이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반적인 조사자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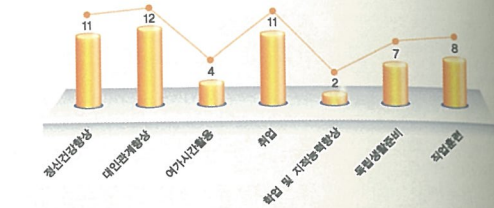
-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편이나 개별화된 서비스계획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하반기 서비스만족도 평가에는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11년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시급함 또한 시사하고 있다.

2010년 EM실천 상반기 근로사원 만족도 조사결과

1. EM실천을 이용하는 목적은?

EM실천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고 주 실천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직무지도와 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과 같은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써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대한국제노동기구(ILO) 제99호 권고내용중예). 이러한 측면에서 EM실천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서비스의 방향도 달라 질것이다. 개별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용자의 대부분이 정신건강, 대인관계 및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관을 이용한다면 EM실천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서비스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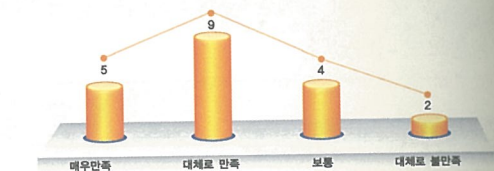


정신건강 향상	대인관계 향상	여가시간 활용	취업	학습 및 지적능력 향상	독립생활 준비	직업훈련
11	12	4	11	2	7	8

2. EM실천 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면에서의 만족 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전체 응답자중 30%에는 보통,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여 그 이유를 알수없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설문으로 보이고 이후 이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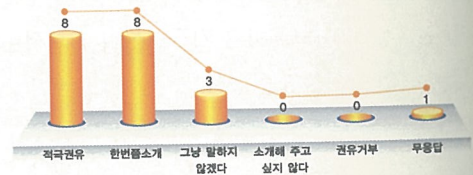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5	9	4	2

3. 다른 사람에게 EM실천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나요?

적극권유, 한번쯤 소개라는 응답률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냥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한 응답자가 3명이다. 이는 이용자중 몇몇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라고 사료되거나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되어 진다.

타인에게 기관권유 의사정도



적극권유	한번쯤 소개	그냥 말하지 않겠다	소개해 주고 싶지 않다	권유거부	무응답
8	8	3	-	-	1

1. 이용절차

1. EM실전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절차는 번거롭고 불편하였나요?

이용절차 및 규정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부분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용절차가 번거롭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 정도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자체내 취업규칙 및 이용규칙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어 진다.

2. EM실전에 이용 등록하기 위해서나 재이용을 위해서는 적응기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EM실전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적응훈련기간을 1개월로 내부지침을 마련한 EM실전의 적응훈련기간은 이전의 2주정도에서 1개월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기간은 상호 평가기간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지고 있다.

2. 물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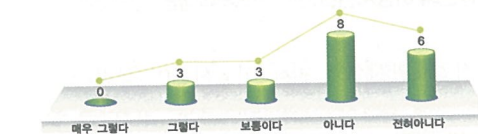
1. EM실전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은 적절한가요?

출발 흡연실, 매점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명으로 사실 여성근로사원을 위한 휴식공간, 비흡연자를 위한 휴식공간등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2. EM실전에서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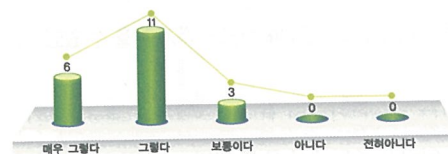
컴퓨터를 활용하여 직무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컴퓨터 접근성, 활용도를 위해 노력중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활용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이 있어서 좀더 개방적인 접근성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이용절차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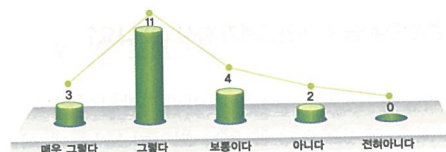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0	3	3	8	6

적응훈련기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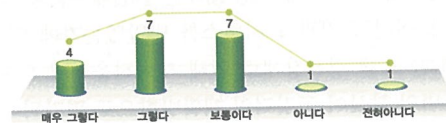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11	3	0	0

휴식공간의 적절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3	11	4	2	0

컴퓨터활용의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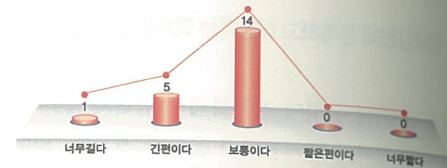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7	7	1	1

3.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EM실천의 이용시간(오전9시-오후6시)은 적당한가요?

다른 직업재활시설에 비해 이용시간이 직원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길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직장체험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작업활동시설등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길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제시하는 적절한 근로이용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겠다.

이용절차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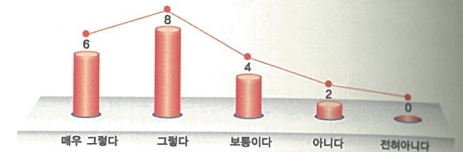


너무길다	긴 편이다	보통이다	짧은 편이다	너무 짧다
1	5	14	0	0

2.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즉시 받을 수 있었나요?

CT와 담당 사례담당자의 관계형성정도에 따라 위기시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위기시 이용자들은 얼마나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볼때 전반적으로 도움을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 하기는 하나 일부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다. 이것이 조사자의 의견처럼 관계에서의 어려움인지 다른 이유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위기개입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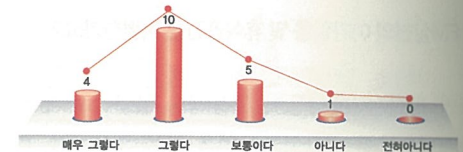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6	8	4	2	0

3. 직업훈련을 통해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나요?

기관이용목적중에 하나인 대인관계향상에서 이용자의 향상정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기존에 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의 경우 긍정적인 향상정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대인관계 향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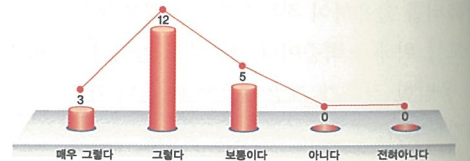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	10	5	1	0

4.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나요?

자신감향상정도도 매우 긍정적인 편인데 이 응답의 경우 3-6항목과 함께 이전에 어떠한 기관과 서비스를 받았었는가에 따라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또한 오랜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응용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의 향상이 긍정적인 재활방향으로 평가된다.

직업훈련을 통한 자신감 향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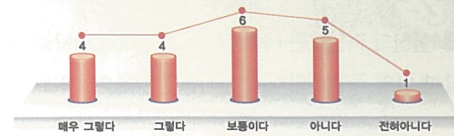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	12	5	0	0

5. 담당 직원으로부터 취업을 위해 적절한 상담이나 도움을 받았나요?

직원의 친절도는 높은 반면 취업에 대한 적절한 상담응답률을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볼수있다. 취업에 대한 서비스활동이 미약한 현재의 EM실천의 사업평가를 볼때 이점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대한 적절한 상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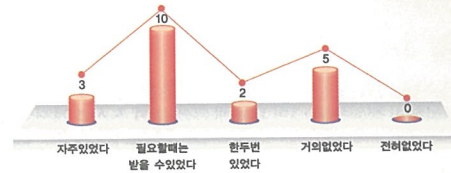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4	4	6	5	1

6. EM실천을 이용하며 개인적으로 원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개별화된 재활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평가문항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5%이다.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서비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담당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여부



자주 있었다	필요할때 받을 수 있다	한두번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없었다
4	4	6	5	1

7. EM실천을 이용하며 유익하고 좋았던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 5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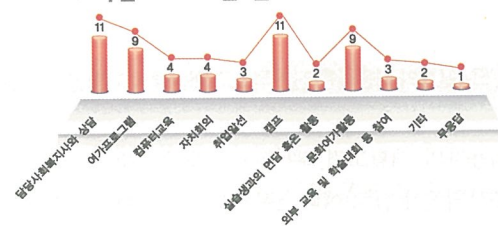
1순위: 캠프, 상담

2순위: 여가, 문화활동

3순위: 컴퓨터교육, 자치회의

개인적인 상담외에 유익할 프로그램을 보면 대외 활동이 중심인 캠프, 여가, 문화활동에 응답률이 높았고 자기발전 및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육과 자치회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유익한 프로그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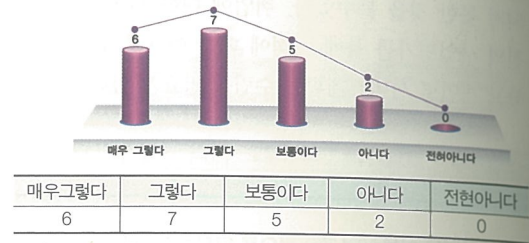
상담	여가 PG	컴퓨터 교육	자치회의	취업 알선	캠프	실습생 과외면담활동	문화 여가 활동	외부 교육	기타
11	9	4	4	3	11	2	9	3	3

4. 직원에 대한 평가

1. EM실천의 직원들은 나의 정신건강문제와 재활을 위해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의 욕구(희망)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3-10문항과 유사한 흐름으로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이 이루어 지지 못함에 응답한 응답자가 2명정도로 나와 이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 수립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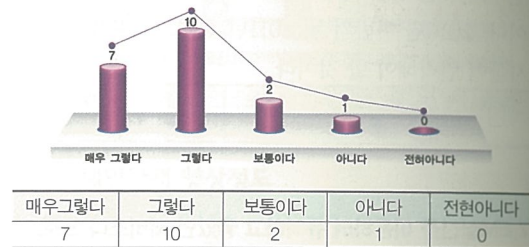
이용절차의 적절성



2. EM실천의 직원들은 나의 문제에 관해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EM실천의 임파워먼트의 의미처럼 이용자의 자기역량강화중에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우선시 하는 직원의 노력은 우수하다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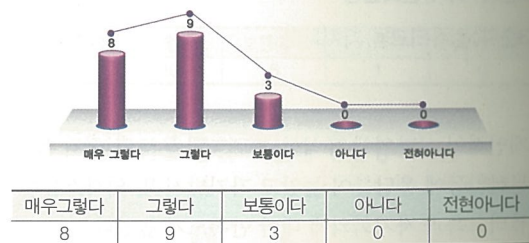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직원의 노력



3. EM실천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회원들의 재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의 재활노력, 관리자의 재활노력이 얼마나 동일한가하는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직원들이 이용자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재활을 위한 직원의 노력정도



EM실천 새로운 일꾼을 모집합니다.

- 등록장애인 만 18세 이상 ~ 55세 미만
- 일할 의욕이 있는자



EM실천 후원안내

EM실천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응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실천의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있길바랍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예 금 주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 인쇄**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인쇄** 등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 의 : 02-875-9744, 9733

자원봉사 모집 안내

“봉사는 나누면서 내가 더욱 살찌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한 번만 봉사를 해도 괜찮을까? 이번밖에 시간이 없는데..’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01 | 내 · 외부 행사 보조 지원
03 | 전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02 | 일거리 작업참여

후원해 주셨습니다

01 | 대릉6차 “웰빙푸드 구내식당”
“최병태” 사장님께서 근로사원 7명의 식비지원

고객의 믿음으로 자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민국 금융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랜 기간 국민이 보내주신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든든한 은행으로 우뚝 서겠습니다